

# “과거 영광보다 지금이 소중 ... 위로되는 노래 하고파”

데뷔 30년 ... 가수 신승훈

음악만 했던 인생  
선 하나는 그은 것 같아  
가장 소중한 노래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30년 동안 음악의 외길을 걸어온 것에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있죠.”

1990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신승훈(54)은 가요사에 유일무이한 흔적을 남겼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이지 않는 사랑',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내가 있을 뿐', '아이 빌리브' 등 그의 솔한 히트곡은 폭넓은 세대의 심금을 울리며 그에게 '국민가수', '발라드 황제'란 칭호를 안겼다.

이후 음악적 실험은 물론 후배 가수들의 멘토, 제작자 등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며 지평을 넓힌 그가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최근 온라인 화상 인터뷰 만난 신승훈은 “이제는 ‘반환점’을 맞은 것 같다”며 살 틈 없이 달린 음악 여정을 돌아봤다. 8일 3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마이 페르소나스(My Personals)’를 발표하는 그는 “과거의 영광보다는 이 순간이 소중하고, 지금에 더 충실하고 싶다”고 했다.

◇ “음악만 했던 나...30년쯤 하니 선 하나 그은 듯”

인터뷰에서 신승훈은 “음악도 했던 신승훈이 아니고 ‘음악만 했던 신승훈’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만큼 신승훈의 음악 인생 30년은 빼곡한 기록으로 차 있다.

신승훈은 대전 은행동 카페 골목 통기타 가수로 시작해 데뷔 앨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가요계에 등장했다. 유재하 기일인 1990년 11월 1일 데뷔한 그는 미



성과 애뜻한 멜로디, 사랑과 이별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노랫말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신승훈은 “올 한 해만큼 가장 소중한 노래로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꼽고 싶다”며 “(데뷔곡을 발표한) 그날로부터 30년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국민가수”란 별명답게 그는 솔한 기록을 썼다. 1집부터 7집까지 7장의 음반이 연속 밀리언셀러에 오르며 1천700만장에 달하는 총 누적 판매고를 올렸다. 정규 음반 10장이 연이어 골디디스크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가 정말 많은 장르를 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뉴재즈풍도 하고, 디스코인 ‘엄마야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신승훈’ 하면 좋았던 기억

이 발라드를 부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30년간 자기 색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고요.”

◇ “노래 끝나면 받는 박수가 내 원동력...30주년 앨범, 본심같은 음악”  
음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시종 반듯한 이미지를 지닌 신승훈은 “일탈을 매일 꿈꾸는데, 제가 그럴 사람이 못 되나 보다”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음악 인생에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이걸 진정성을 갖고 쓰는 건가’ 싶어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괴리감이 찾아올 때도 많았다고 한다.

최근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포함해 데뷔 30주년 전국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는 “너무 아쉽다”고 토로

팬들에 대한 고마움  
'마이 페르소나스'에 담아  
세대 같이 보낸 사람들과  
삶의 무게를 나누는  
가수가 되고 싶어

신승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송강호 배우라면, 저에게는 제 음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본심’ 같은 음악들. 멜로디를 입히고 악기를 입혀서 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블 타이틀곡 ‘여전히 헤어짐은 처음처럼 아파서’와 ‘그러자 우리’는 명실상부 ‘신승훈표’ 발라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서정적인 곡들이다.

◇ “BTS 대견했다...삶의 무게 위로하는 음악 하고파”

30년차 가수 신승훈이 바라보는 요즘 음악계는 어떨까. 그는 “처음엔 감각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코 음악이 점점 깊어지더라”며 최근에는 후배 가수 중 지코의 음악 세계를 주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2019 MAMA) 시상자로도 나선 그는 “파란 눈을 가진 친구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부르는 걸 보면서 ‘이게 국위선양 아니냐’ 생각했다”며 “부럽기도 하고 너무 대견했다”고 했다.

후배들이 아이돌 생활을 하다 정체성을 고민할 때 배로서 지표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는 사명감도 밝혔다.

신승훈이 앞으로 그러는 자신의 모습도 ‘추억 속’ 가수는 아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세대를 같이 보낸 청춘들과 ‘삶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스페셜 앨범 선공개곡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 /연합뉴스



송창식



송가인

## 송창식 - 송가인

### ‘악인전’에서 몽친다

KBS 음악예능 25일 방송

가수 송창식과 송가인이 KBS 2TV 새 예능 ‘악(樂)인전’에 합류한다.

8일 KBS에 따르면 ‘악인전’은 ‘음악인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음악에 한이 있는 ‘음악 늑동’들이 전설적인 악인연을 만나 신규 프로젝트를 실험해가는 과정을 담은 뉴트로 음악 예능이다.

송창식은 이 방송을 통해 데뷔 53년 만에 첫 리얼리티 예능에 출연한다.

음악다방 세시봉 멤버로 1970년대 청년 문화를 이끈 송창식은 1975년 MBC 가요대상 ‘왜 불러’로 가수왕을 차지했으며 ‘고래사냥’, ‘피리 부는 사나이’ 등 히트곡을 남겼다.

송가인은 지난해 TV조선에서 방송된 트로트 서바이벌 ‘미스트롯’ 우승자다.

오는 25일 밤 11시 KBS 2TV 첫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얼 셀러드	30 930 MBC 뉴스 55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토론(초청 제2차)	10 좋은아침
00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토론(초청 제2차)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00 인간극장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모도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충설계
00	사랑의 가족 50 UHD 승터(재)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합평군수 후보 토론 연설			00 뉴스브리핑
30	영상앨범 신(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사간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날도 지오그래피 50 담양함평영광광장성 민생당 김연관 후보 방송연설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30 좌충우돌 한국 유랑기(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총선후보연설-이재호(민주당)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50 제21대 총선방송연설 정의당 55 전국 TOP 10 가요쇼
00	뉴스7 광주전남 30 아생여정 플러스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25 제21대 총선 연설방송 <민주당 송갑석> 35 MBC 뉴스데스크	40 총선후보연설-황주홍(민생당) 50 SBS 8 뉴스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이십세기 히트-트송	55 그 남자의 기억법	35 KBC 8 뉴스 45 총선후보연설-서삼석(민주당)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00	후보연설 <국가혁명배당금당> 10 공사창립특집 신규 인사이드	00 어서와	05 시리즈M	00 맛남의 광장
05	더 라이브 4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살림하는 남자들 1~2부(재)	05 100분 토론	40 점수! 무비월드 스페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울렷뮤직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재난방송센터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0 나이트라인

## EBS1

07: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40	아기 동물 귀여워	19:00	말괄량이 삐삐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00	오드롯, 이상한 아이들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15:1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띠띠뽀 띠띠뽀	15:25	애코와 친구들(재)	20:00	극한직업
08:45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5:4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0:50	세계대마기행 1~2부 <겨울 동화, 중국 신영애이우열 파키스탄 -추울수록 따뜻한 김밥>
09:00	레인보우 루비	15:55	꼬마하어로 슈퍼잭(재)	21:30	한국가방 <기운차다, 봄 4부 봄을 담아 당신에게>
09:30	물랑	16:10	레인보우 루비(재)	21:50	다큐 잇it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6:25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재)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6:40	딩동댕 유치원(재)	23:30	경이로운 지구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7:00	EBS 뉴스	23:45	우주탐사 이야기
13:50	특집 애니메이션 잠백이 한반도의 공룡2:새로운 낙원	17:20	띠띠뽀 띠띠뽀(재)	24:15	지식채널e
		17:35	물랑(재)		
		17:45	허풍선이 음악쇼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9일(음 3월 17일 壬午)

	36년생 뽀뽀의 이익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운수다. 48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60년생 충분히 실력 발휘 하고도 남음이 있다. 72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84년생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96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42, 62		42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일이 있다. 54년생 환경에 지배 받지 말고 대국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라. 66년생 이익이 보이니 주저하지 말고 도모하라. 78년생 예상하지 못 했던 행운이 깃드는 양태이다. 90년생 마음만 먹고 있어 봤자 의미가 없으니 실행에 착수해야 가치가 있다. 02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 67
	37년생 절제대로 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49년생 예상하지 못 하였던 다른 국세로 탈바꿈할 수도 있으나. 61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 하자. 73년생 조심성을 잃지 않아야만 위험을 비껴갈 수 있으나. 85년생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97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38, 88		31년생 계획 수립으로 무척 부산할 때다. 43년생 전방위적이고 완벽한 방어책이 절실하다. 55년생 실행의 규모와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67년생 타의에 좌우 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79년생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하라. 91년생 기조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50
	38년생 주변인의 평에 귀 기울여라. 50년생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62년생 지난 날 못 했던 바를 이루는 장거가 보인다. 74년생 대단히 부담스러워 해 왔을지라도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울 것이다. 86년생 정면으로 대응하여 승부를 내야만 후환이 없다. 98년생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당황했다. 행운의 숫자 : 54, 02		32년생 속단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44년생 적용만 잘 한다면 길사가 펼쳐지리라. 56년생 미리 쟁거두어야 한다. 68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80년생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될 것이다. 92년생 철저한 실행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86
	39년생 요령껏 해소 할 수 있어야겠다. 51년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 63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 무탈하다. 75년생 처음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맞다. 87년생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바가 뜻밖의 판세로 비화 될 수 있다. 99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0, 68		33년생 성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45년생 예상치 못한 마당에서 당혹스럽겠다. 57년생 전반기나 중재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 69년생 한 번 모순에 빠지면 연쇄적인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국량이다. 81년생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93년생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8, 95
	40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52년생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64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76년생 지금 수습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도 있다. 88년생 건전한 습관이 성공의 길로 이끄느니라. 00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하나씩 해결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4		34년생 오해로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제반사에 삼가라. 46년생 지금의 마당에서는 참신한 변화의 추구가 활로를 개척하는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58년생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70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지 마라. 82년생 대범한 행동을 보일 때다. 94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7, 85
	41년생 주관에 사로잡혀 과잉 판단을 한다면 손실이 따른다. 53년생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65년생 더불어 행하고자 함이 유익하다. 77년생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89년생 원칙적인 기준 하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01년생 부질없는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69		35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 47년생 건설적인 요인이 보이니 그것에 중점을 맞춰라. 59년생 슬도가 없으니 체념은 빠른수록 유익하다. 71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인다. 83년생 방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화근이 될 수 있느니라. 95년생 확실한 목적의식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25, 75